



2017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

광주 북구, 우수 보육프로그램 성과 ‘공유’

광주시 북구가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보육문화 확산을 위한 '2018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가 더불어 행복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연

구·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장구놀이·윷놀이 등 북구 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장 추천을 통해 선정한 5개의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 우수 보육교직원 15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가 더불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예산부족’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시, 국비 추가지원 ‘파란불’

항공료·객실단가 등 과소계상 예산 평창올림픽의 3.7% 불과 1697억→2235억원 증액 요구 이낙연 “국회 합의면 지원가능”

광주시가 예산 부족으로 애를 태우던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에 파란 불이 켜졌다.

최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국비 추가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애초 국비 482억원을 포함해 1697억원이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를 국가지원 295억원(국비 169억원·기금 126억원)등 538억원 늘어난 223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요

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항공료와 호텔 객실 단가 등 운영비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됐고, 세계수영연맹 요구와 여건 변동에 따라 누락·추가 항목이 발생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5대 세계스포츠 중 하나인데도 예산 규모가 평창올림픽의 3.7%밖에 안 되고, 가장 적게 지원한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의 41.8%밖에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설비 부분에서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원가 방식으로 확정됐으나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증가했다.

증가분은 수경기장 변경과 관람석 증가로 103억원, 주 경기장 진입도로 사면보강 39억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 추가 지원 요청에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

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나선 송갑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예산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평화의 메시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국내 유일 국제대회로서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합의해준다면 지원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대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당의 지원 약속에 이어 총리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해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인천시, 3개월간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인천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 노출시 동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길거리 노숙인 159명, 노숙인 시설 7개소 335명, 쪽방생활자 309세대 424명 등 취약계층 총 918명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소방, 군구, 관련시설을 연

계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거리노숙인 안전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밀집지역 현장활동을 통한 상담보호와 시설입소 및 응급잡자리를 제공하고 방한복 등 응급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한편, 쪽방 주거지 순회방문으로 보일러 수리교체와 난방비, 겨울용품(4,800만원 상당) 및 김장김치, 연탄 2000장을 지원한다.

또한, 쪽방상담소 계양본소, 동구본소 등 2곳의 한파대피소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j@

농업인들 모여 ‘식량작물’ 개선방안 모색

전남 장성,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타작물 성공적 재배사례 등 공유

장성군 농업인들이 식량작물 생산력 향상을 위한 평가회를 가졌다.

장성군은 지난 6일 농업인회관에서 지역 농업인 100여명이 참여하는 '2018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열고, 올해 식량작물 작황 분석과 재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7일 밝혔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쌀 전업농, 2세 농업인 등이 참여한 이번 평가회는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식량작물 사업을 평가하고, 타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한 타 시군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올해 벼농사는 폭염, 가뭄, 태풍으로 생육에 지장을 받았으나, 유숙기와 등숙기에 충분한 일조량을 얻고 전년 대비 병해충 발생이 적어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8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장성군은 올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명품 수출쌀 육성프로젝트'를 꼽았다.

2015년에 26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4년차에 접어든 올해 '365생' 쌀을 5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미국 등 5개국에 108톤을 수출하고, 가공즉석밥 '농협소반'도 해외시장에 32톤 가량 판매했다.

장성군은 관내 쌀 판매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시장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수출 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해

외 소비자 입맛과 기호에 맞는 전락 품종을 생산하고, 재배 기술 보급 등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식량작물 생산 기반을 다양화 해 농업인들이 농업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쌀의 경우 꾸준한 품질관리로 미질을 높이고, 쌀 이외의 대체작물 생산 기반도 확대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완도어업정보통신국 개국식 열어

완도군-수협중앙회

완도군과 수협중앙회는 지난 6일 전국에서 18번째로 문을 연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의 개국식을 개최했다.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법 개정으로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의 의무 설치 어선이 총 톤수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신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됐다.

/전남 완도=이제민 기자 wando1106@

완도군 군외면에 총 사업비 31억 6500만 원, 대지 1678.7㎡(507평) 지상 2층 연면적 843.45㎡(259평) 규모로 어업인 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통신실 등을 갖추었다.

업무 구역은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으로 △출어선 안전 지도 △한일, 한중 EEZ 조업선 관리 △해상 통합방위 통신 △방재업무 △안전조업에 관한 어업인 교육 등을 수행한다.

아시아 11국 문학인 광주에 모인다

아시아 다양성 존중과 새로운 문학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문화 작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를 모색하는 2018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7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11개국 23명(해외 10개국 11명, 국내 12명)과 지역작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7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국내외 초청작가, 지역작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백낙청 조직위원

장(문학평론가)은 "5·18의 평화정신이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통해 아시아 문학인들의 소통과 연대로 더 구체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했던 이곳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 각국의 문학인들이 쌓아갈 뜨거운 연대와 이야기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며 "이번 행사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문학인들의 축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창조 문화가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곳으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내일까지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국내·외, 지역작가 30여명 참여

다"며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문학계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며, 경계없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 축하공연으로는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가 담딘수렌 우리앙카이의 시 '증언'을 모티브로 한 창작무용(안애순 아시아무용단 예술감독) '시간의 흔적'이 무대에 올랐다.

한편, 6일 오후 2시 백낙청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위원, 몽골 담딘수렌 우리앙카이, 베트남 바오 님, 팔레스타인 자카리아 무함마드 등 국내외 초청작가들은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나종영 시인이 '5월, 광주여 영원한 것발이여'라는 추모시를 낭독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4 | 해질 / 17:27

11월 8일 (木)
음력 : 10월 1일

수도권 날씨 **11~1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